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21년 11월 24일 | 책임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인구 942만명 (2021 ^f)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4,102억 달러 (2021 ^f) 	1인당GDP 43,538 달러 	통화단위 the Emirati Dirham (AED) 	환율(U\$기준) 3.67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 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s)으로 구성된 연방 군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란과는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각화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향후 50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9월 '50개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젝트 26개를 공개하였음.
-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국제유가 약세 및 산유량 감소로 -6.1%의 역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두바이 엑스포 개막,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 성장을 회복하고,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아부다비의 여타 토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두바이와의 적절한 권력 배분으로 정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낮으나,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관계(특히 이란과의 관계) 및 주변국의 내전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5), 군사협력협정('07),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8), 문화협력협정('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0), 항공협정('10), 세관협력협정('15), 사증면제 양해각서('16), 범죄인인도조약('17), 형사사법공조조약('17), 이중과세방지·탈세·회피예방협약('20)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4,588,472	3,469,772	3,653,611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무기류
수입	9,287,378	8,991,147	5,692,741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6월 말 누계, 총 투자기준) 485건, 2,648,03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2.4	1.2	3.4	-6.1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3.1	-1.9	-2.1	2.0
재정수지/GDP	-1.7	1.9	0.6	-5.6	-0.5

자료: IMF.

비석유 부문의 안정적 성장 지속

- UAE는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각화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014년 하반기부터의 석유·가스 부문의 부진을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상쇄하여 국가경제의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그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경감시켰음.

연도별 GDP 규모 및 산업별 구성 현황

단위: 억 디르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14,805	13,153	13,112	14,161	15,506	15,322	13,179
석유·가스 부문	5,052	2,870	2,531	2,900	4,029	3,474	2,271
비석유 부문	9,754	10,283	10,581	11,262	11,477	11,848	10,908
도소매업 무역 및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업	1,558	1,610	1,705	1,883	1,905	2,024	1,787
금융 및 보험업	1,155	1,252	1,316	1,339	1,322	1,358	1,298
제조업	1,149	1,162	1,178	1,296	1,354	1,346	1,276
건설업	1,223	1,277	1,238	1,278	1,325	1,374	1,227
공공행정·방위산업 및 사회보장	804	837	887	994	1,049	1,049	1,024

자료: UAE 연방통계청.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6.1%의 역성장 시현

-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약세 및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산유량 감소로 석유 및 비석유 부문 모두 크게 위축되며 -6.1%의 역성장을 시현하였음.
- 비석유 부문의 경우, 두바이 경제의 주요 산업이자 세계경기에 민감한 무역업, 물류업, 관광업* 등의 타격이 특히 컸음.

* Moody's에 따르면 두바이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 16.7백만 명에서 2020년 5.5백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됨.

국내경제

2021년 경제는 국내외 경기 회복 등으로 2%대 플러스 성장 회복 전망

- 2021년 경제는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두바이 엑스포 개막¹⁾과 이에 따른 관광업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약 2.2%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11월 7일 기준 1차 이상 접종률은 97.51%이며, 접종 완료율은 87.5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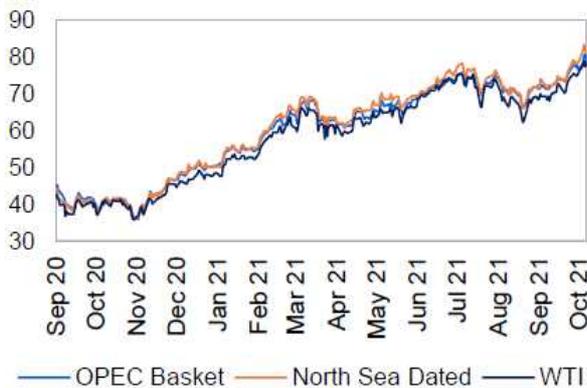
- 국제유가는 OPEC Basket 기준 11월 9일 현재 82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 및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국제원유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2021년 8월 말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에 따른 미국의 원유 생산 차질, OPEC+ 기존 증산 속도 유지(8.1자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 증산) 등으로 인한 공급 제한으로 원유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합의된 감산 쿼터 완화 규모는 UAE가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에 대한 석유 부문의 기여도는 2022년 산유량 쿼터 조정* 전까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UAE는 7월 OPEC+ 장관 회의에서 실제 생산능력(일 400만 배럴 이상 추정)에 비해 자국의 OPEC+ 쿼터 산정 기준이 되는 산유능력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음. 이에 OPEC+은 2022년 5월부터 UAE의 원유 생산기준을 상향 조정(320만 b/d → 350만 b/d)하기로 합의함.

- UAE 일일 원유 산유량은 2019년 309.4만 배럴에서 2020년 280.2만 배럴, 2021년 1분기 261.0만 배럴로 크게 감축*되었음. 이후 산유량은 2021년 2분기 264.4만 배럴, 2021년 3분기 276.1만 배럴로 감산 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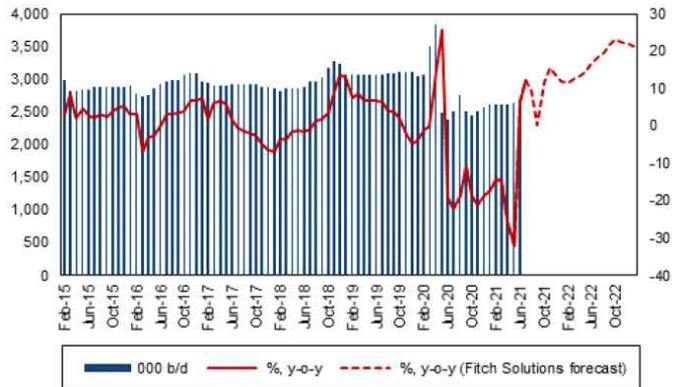
* OPEC+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유수요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여 2020년 5월부터 산유량 감축에 합의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산 쿼터를 조정 중임.

국제원유 가격 변동 추이(달러/배럴)



자료: Argus, OPEC, Platts.

UAE의 월간 산유량 및 전망치



자료: Fitch Solutions.

1) 두바이 엑스포는 2020년 10월 20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된 후 2021년 10월 1일 개막하였으며, 최대 192개국 참가하에 6개월간 운영될 예정임. Ernst & Young(2019.4월)에 따르면 두바이 엑스포로 인한 총 부가가치는 각종 인프라 건설, 관광객 방문, 행사 후 전시공간 활용 등에 따라 334억 달러(직접효과 146억 달러, 간접효과 115억 달러, 유발효과 73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총 905,200개의 일자리(연 49,700명)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2)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2021.10.13).

국내경제

2022~23년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3~5%)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2023년까지 UAE 경제는 OPEC+ 감산 완화에 따른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두바이 엑스포(2022.3월 폐막 예정) 및 주요 관광국(인도·파키스탄 등)으로부터의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3~5%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Fitch Solution은 2022년 UAE의 산유량이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기관별 UAE 2021~23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	IMF(10월)	중앙은행(9월)	EIU(11월)	Fitch Solutions(9월)	IHS Markit(11월)
2021년 ^e	2.24	2.1	3.7	3.7	2.3
2022년 ^f	3.04	4.2	4.5	4.1	4.2
2023년 ^f	3.04	-	4.3	3.6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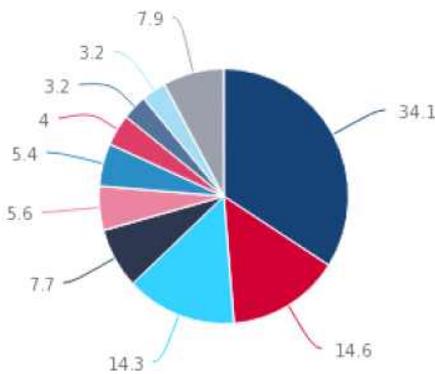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2년 간의 디플레이션 이후 2% 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2019~20년에는 경제성장 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2% 내외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나, 2021년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2%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요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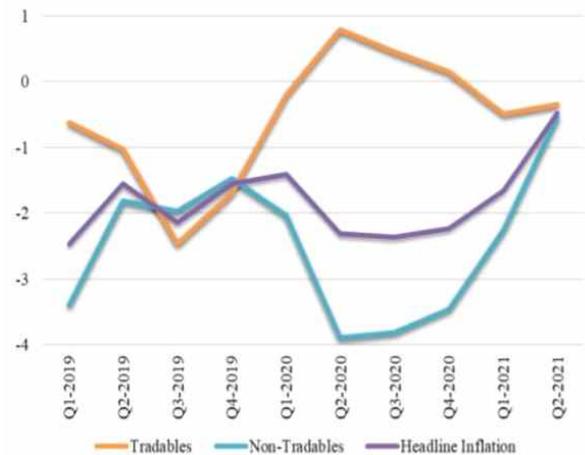


Legend: Housing, Transport, Food, Education, Furniture, Communication, Hotels, Clothing, Recreation, Other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UAE 통계청(FCSA))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UAE 중앙은행

국내경제

2021년 재정수지는 유가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

-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은 아부다비의 석유 수출에 따른 수입(收入)으로, 국제원유 시황은 UAE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시행, 경기 부양, 대규모 투자 추진 등을 좌우하고 있음.
- 2020년 재정수지는 국제적인 저유가 기조와 OPEC+의 감산 협의 및 국제석유 수요 감소 따른 산유량 감소뿐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GDP의 -5.6%의 적자를 시현 하였으나, 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크게 감소(GDP의 -0.5%)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가 2021년 예산안 최초 수립 시점(2020년 말)보다 상승한 후 당분간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UAE 정부는 이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 EIU는 2022~26년 간 평균 국제유가를 배럴당 61.3달러로 전망하는 한편, 2022년 UAE 균형재정 유가를 그보다 낮은 배럴당 60.4달러로 전망함(2021.10.6.자 기준).
- 정부는 코로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업종별로는 관광업 및 건설업 등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27,465	40,478	37,321	20,985	57,474
경상수지/GDP	7.1	9.6	8.9	5.8	14.0
상 품 수 지	67,193	85,652	80,452	62,320	99,688
상 품 수 출	313,504	320,991	313,749	273,074	333,625
상 품 수 입	246,311	235,339	233,297	210,754	233,937
외 환 보 유 액	94,354	98,412	106,381	102,164	116,749
총 외 채	225,588	228,731	262,862	284,591	297,550
총외채잔액/GDP	58.5	54.2	63.0	79.3	72.5
D.S.R.	11.5	12.9	13.2	16.1	14.0

자료: IMF, EIU 및 OECD.

상품·서비스 수출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 2배 이상 증가 예상

- 202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액 증가뿐 아니라 주요 외화소득원인 재수출(기계류 포함) 규모 증가 및 두바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 수입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UAE는 다양한 물류 인프라 및 제도 구축 하에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중개무역 시장의 역할을 수행 중

2019년 UAE의 상품 수출입 품목별 구성 현황

상 품 수 출			상 품 수 입		
품 목 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품 목 명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213,021.3	54.7	기계 및 운수장비	89,295.3	35.8
기계 및 운수장비	64,857.2	16.7	기타 제조제품	36,548.3	14.7
재료별 제조제품	32,951.3	8.5	재료별 제조제품	34,586.6	13.9
기타 제조제품	28,608.2	7.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32,156.5	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19,183.4	4.9	화학물 및 관련 제품	16,951.5	6.8
화학물 및 관련 제품	13,612.8	3.5	식품·산동물, 음료·담배	16,900.0	6.8
식품·산동물, 음료·담배	12,834.7	3.3	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16,437.7	6.6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4,303.5	1.1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6,232.8	2.5

자료: UNITED NATIONS. 202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외채상환능력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및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로 채무상환능력 양호

- 외환보유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4.3개월분인 1,1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UAE의 총 외채잔액은 2017년 2,256억 달러에서 2021년 2,976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지표는 2021년 총수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며 개선되었음.

연도별 외채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총외채잔액(억 달러)	2,255.88	2,287.31	2,628.62	2,845.91	2,975.50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467.69	534.67	561.41	567.65	590.26
외채원리금상환비율(%)	11.5	12.9	13.2	16.1	14.0
총외채잔액/총수출(%)	55.7	55.2	61.6	80.8	72.6

자료: OECD, EIU

- UAE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연방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2021년 10월 40억 달러(응모액은 2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양호한 외화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한 바 있음.

* 10년물 10억 달러(UST+70bps), 20년물 10억 달러(UST+105bps), 40년물(포모사 본드³⁾) 20억 달러(3.25%)로 구성
 - 한편, 아부다비 정부는 토후국 차원에서 2021년 5월과 9월 각각 20억 달러(응모액 69억 달러, 7년물) 및 30억 달러*(응모액 97.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 10년물 17.5억 달러(UST+63bps), 30년물 12.5억 달러(3%)로 구성

외환보유액 외에도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 운영

- UAE는 외환보유액 외에도 석유수출 자금 등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중장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를 운영 중이며, 특히 아부다비의 경우 세계 4위 및 13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함.
- 국부펀드는 미래산업(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및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연방정부(UAE) 및 토후국 소유 주요 국부펀드 자산 현황

세계순위*	국부펀드	담당기관(설립연도)	소속 정부	총자산(백만달러)
4위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부다비 투자청(1976년)	아부다비	649,176
11위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두바이 투자공사(2006년)	두바이	302,326
13위	Mubadala Investment Company PJSC	무바달라 투자회사(2002년)	아부다비	243,000
19위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에미리트 투자청(2008년)	연방정부	68,000

* 국부펀드 총자산 기준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SWFI) (조회일자 2021.11.5.)

3) 외국기관이 대만 자본시장에서 현지 통화(대만달러)가 아닌 타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구조적취약성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

- 2020년 말 기준 UAE의 원유 매장량⁴⁾은 978억 배럴로 세계 8위(생산량 기준 7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5.9조㎥로 세계 8위(생산량 기준 15위)임. 이는 추가적인 매장량의 발굴 없이 현재 생산수준을 유지할 경우 원유는 향후 73.1년, 천연가스는 향후 107.1년 동안 생산 가능한 규모임.
- 석유·가스 산업은 UAE의 국부 창출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UAE 경제는 국제 석유시장 환경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 한편, UAE 정부가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 감소 및 세계적인 탈석유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산업 다각화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GDP 내 석유 부문 비중은 2014년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음.

UAE의 연도별 GDP의 석유·가스 부문 비중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대비 비중	34.1%	21.8%	19.3%	20.5%	26.0%	22.7%	17.2%

자료: UAE 연방통계청.

- 특히, 수소 및 태양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연방정부 및 토후국 차원에서 모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UAE 정부)** 2017년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하여 총 에너지 믹스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25%에서 2050년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carbon footprint)의 7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원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목표는 청정에너지 44%, 가스 38%, 정탄(clean coal) 12%, 원자력 6%이며, 이를 위해 UAE 정부는 2050년까지 6,000억 디르함을 투자할 예정임.
- **(아부다비)** 아부다비투자회사 무바달라는 2006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탄소폐기물 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의 건설을 위해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마스다르 시티에 10MW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영위 중임.
- 아부다비는 2026년까지 5,700MW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임.
- **(두바이)** 2015년 수립된 '청정에너지 전략 2050'에 따라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2020년 7%, 2030년 25%, 2050년 75%로 확대코자 하며, 2030년까지 가스 61%, 태양에너지 25%, 원자력 7%, 정탄 7%로 에너지원을 다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2021.7월)

구조적취약성

총인구 대비 낮은 자국민 비율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성

- EIU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자국민 비율이 2006년 약 20%에서 현재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⁵⁾하였으며,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은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저기술 기반의 아시아 출신으로, 이들은 가족의 생계자금 제공을 위해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음. 즉, 이들의 소득은 자금 유출로 이어져 저가의 비내구재 및 생필품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소비를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UAE 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UAE 정부는 자국민의 민간 부문 취업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5년 후 10% (연 2%p씩 증가)까지 확대코자 추진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급여·연금 납부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실업급여 등을,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안식년 급여 지원(6~12월 간 급여의 50% 지급), 대출자 창업지원금 지원⁶⁾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결되기에는 인구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5) CIA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UAE 인구는 자국민(에미리트인) 11.6%, 남아시아인 59.4%(인도인 38.2%, 방글라데시인 9.5%, 파키스탄인 9.4%, 기타 2.3%), 이집트인 10.2%, 필리핀인 6.1%, 기타 12.7%로 구성(2015년 추정)

6)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21년 9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21.10.7.).

성장잠재력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혁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

-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월 상업회사법을 개정, 2021년 4월 1일부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 시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임명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6월 1일부터 현지법인 설립 시 요구되었던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UAE 국적자가 최소 51% 지분을 충족) 조항도 폐지하여 에너지 등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 UAE 영토 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타중동국가 대비 UAE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였음.
 - * 다만,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 권한에 의해 토후국별로 실제 회사 등록 및 라이선스 발급 절차 상이
- 아부다비는 연방상업기업법에 따라 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 산업활동 725개(허용목록으로는 1,105개)를 선별하였으며, 두바이는 1,000종 이상의 상업 및 산업활동에 대해 외국인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음.
- 이처럼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혁의 노력으로, 현재 UAE 내 설립된 외국계 회사 지사 수는 114개국 2,577개로 지난 10년 동안 52% 증가하였음⁷⁾.
- 국가 및 기업 경쟁력 관련 각종 지표에서도 UAE는 아랍권 국가 내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2019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ICT 보급과 기술 부문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운송 인프라 환경도 발전되었음.
- 한편, 안보, 공공 부문 성과, ICT 보급, 생산물 시장,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 미래 인력, 행정 절차 부문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GCC 회원국의 기업환경 경쟁력 순위

지표명(평가대상국)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2019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141개국)	25	36	29	46	45	53
2020 세계은행 기업여건순위*(190개국)	19	62	77	83	43	68
2021 유엔산업개발기구 세계제조업경쟁력 지수(152개국)	30	39	48	58	50	60

* 2021년 9월 세계은행은 2020년 기업여건 순위를 마지막으로 동 지표에 대한 발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UNCTAD에 따르면 아랍권 내 FDI 유입액⁸⁾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20년 FDI 유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98.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연도별 유입액(억 달러): '16년 96.0 → '17년 103.5 → '18년 103.9 → '19년 178.7 → '20년 198.8 (자료: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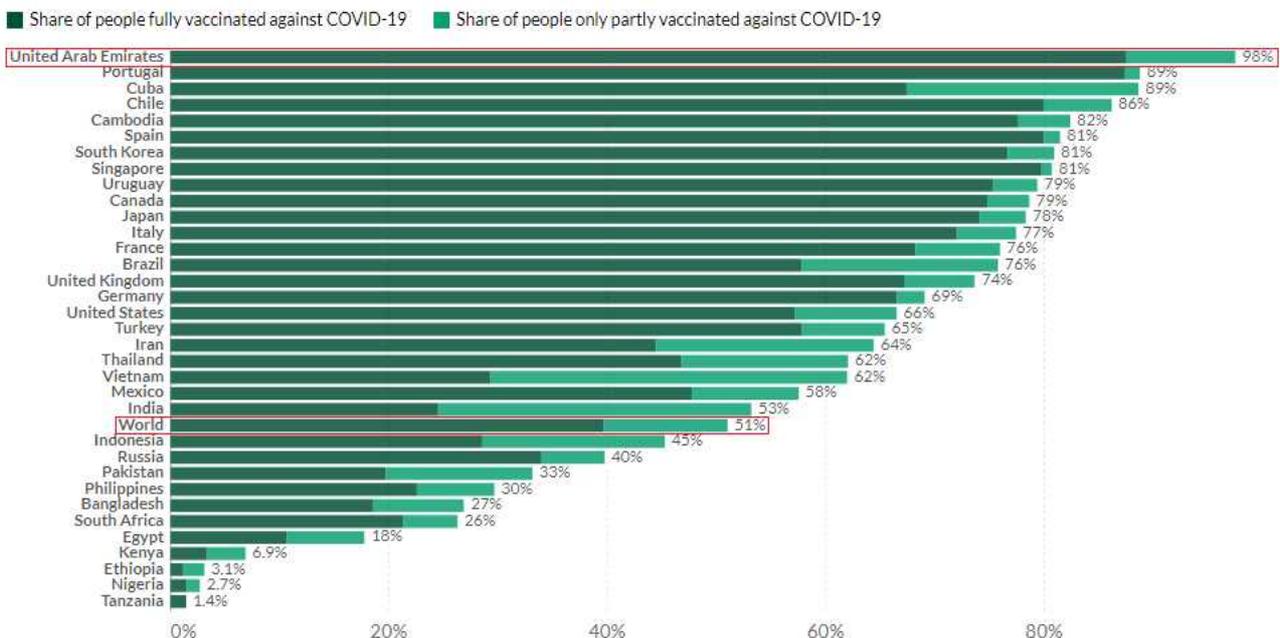
7)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2021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21.9.6).

정책성과

강도 높은 방역조치와 98%의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부상

- UAE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인구와 국토면적이 작은 절대군주제 국가의 통제적 체계 아래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코로나19 관리가 역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UAE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3월 19일부터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UAE 입국을 중단한 데 이어 3월 24일부터 UAE 출·도착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한편, 통행금지, 영업제한, 이동제한 등의 강도 높은 봉쇄를 시행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적·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2020년 9월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발빠른 선제적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뒤, 아부다비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UAE 거주자의 여행 및 외국에 체류 중인 UAE 거주 비자 소지자의 UAE 재입국을 허가하였으며, 두바이는 2020년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였음.
-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11월 7일 기준 UAE의 백신 접종률은 97.51%(1차 접종률 기준)로 세계 1위이자 세계 평균(51.02%)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백신 접종 완료율도 87.51%로 압도적으로 높음.
- 이처럼 높은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관광업의 빠른 회복세, 민간소비 및 부동산업 등 내수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2021년 11월 7일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정책성과

향후 50년을 위한 '50개 프로젝트' 추진

- 2021년 9월 UAE 정부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50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장기 개발 및 경제 프로젝트 계획인 '50개 프로젝트(Projects of the 50)'를 발표하였으며, 2차에 걸쳐 26개 세부 프로젝트를 공개⁸⁾하였음.
- 주요 육성 분야는 경제, 기업가 정신, 첨단기술(skills/technologies), 디지털 경제, 우주산업 등이며, 자국민 인재 양성 및 민간 취업·창업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함.
 - (1) 비자 시스템 개편(비자 및 취업 허가 시스템의 현대화)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
 - ① 고용주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그린 비자(Green Visa)의 발급 대상을 고숙련 인력, 투자자, 기업가, 우수 학생·졸업생 등으로 확대
 - ②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프리랜서 비자(Freelancers Visa) 도입
 - (2)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캠페인 실시
 - (3)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국산품 품질 향상을 위한 국내 이니셔티브 도입
 - (4)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무역 및 투자 거점화 강화
 - ① 8개 경제 파트너 국가(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8개국과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2,570억 디르함에서 연간 400억 디르함씩 증대
 - (5) 디지털 이니셔티브
 - 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연방 데이터법 제정
 - ② 12개월 동안 매달 3,000명(매일 100명)의 신규 컴퓨터 프로그래머(coder)를 유치하여 코딩 인력을 현재 6.4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하고, 자국 내 프로그래밍 기업 설립 촉진
 - ③ 2022년 하반기 중 중동 지역 최대 프로그래밍 서밋 행사인 파이콘 서밋(PyCon Summit) 개최로 디지털 인재 개발, 전문성 향상, 혁신적 기술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공, 글로벌 프로그램 커뮤니티 확장 지원
 - ④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기술을 갖춘 UAE 국내 기업 500개 설립 및 양성
 - (6) UAE 기업환경 경쟁력 강화
 - ① '10x10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10개국(중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에 대한 UAE 수출을 매년 10% 확대
 - ② UAE 전역의 투자기회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포털 'Invest.ae' 출범
 - ③ 공공·민간 부문과 투자펀드를 연계해주는 '에미리트 투자 서밋' 개최를 통해 향후 9년 간 5,500억 디르함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8) <https://u.ae/en/about-the-uae/initiatives-of-the-next-50/projects-of-the-50> (조회일자: 2021.11.12.)

정책성과

- ④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 및 국산품 육성을 위해 '현지 조달 부품 의무 사용 프로그램' 도입⁹⁾
- ⑤ '프로젝트 50억'을 통해 주력 산업 부문에 50억 디르함 배정
- ⑥ 산업 부문의 첨단기술 지원을 위한 50억 디르함 규모의 '테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출범
- (7) 자국민 인재 육성 및 민간 부문의 취업·창업 촉진 등을 위해 13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포괄적 연방 프로그램인 'NAFIS'¹⁰⁾(아랍어로 compete라는 뜻) 시행
 - ① 자국민 7.5만 명의 민간 부문 취업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the Emirati Talent Competitiveness Council) 창설
 - ② 민간 기업의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제고
 - ③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국민 졸업생 앞 연수기간 중 월 8,000디르함 지급 및 이후 5년 간 월 5,000디르함 지급
 - ④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문인(간호사, 회계사, 회계감사, 변호사,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앞 최대 5,000디르함을 지급하는 '메리트 프로그램' 도입
 - ⑤ 월급여 2만 디르함 미만인 직원 앞 5년 간 본인의 연금 기여금 대납 및 자국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최초 5년 간 연금 기여금 비용 대납
 - ⑥ 21세까지 자녀 1인당 800디르함(최대 3,200디르함)의 자녀교육비 지원
 - ⑦ 자산관리, 회계, 경영, 기술 등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한 12.5억 달러 규모의 '탈런트 프로그램' 도입
 - ⑧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견습생 프로그램' 도입
 - ⑨ 2025년까지 의료 부문 종사자 1만 명 배출을 목표로 '헬스케어 개발 프로그램' 도입
 - ⑩ 6개월 간 실업급여 제공(단, 자발적 퇴사자 제외)
 - ⑪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안식년 제공 및 6~12개월 간 급여의 50% 지급(2022년부터 시행)
 - ⑫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기퇴직 직원 앞 퇴직 후 5년 간(또는 일시불) 급여 지급
 - ⑬ 10억 디르함 규모의 펀드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소액 대출 제공

9) 2025년까지 연방정부 및 주요 UAE 기업 조달 중 현지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42%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지 공급업체 수를 5,000개에서 7,300개로, 조달금액은 현재 330억 디르함에서 550억 디르함으로 증대코자 함

10) 총 240억 디르함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2021~25년 민간 부문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7.5만 개를 창출하고 전체 직원 중 자국민 비중이 10%로 제고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치안정

아부다비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방정부 체제 유지

- UAE 정부는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 푸자이라흐, 라스 알-하이마흐, 샤르자흐, 움 알-카이와인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정부로, 1971년 수립 이후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나 토후국별로 각각의 왕정이 있으며 자주권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음.
- 경제규모가 가장 큰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권력이 적절히 배분된 상황에서 UAE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다른 토후국들 앞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연방정부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임.
- 아부다비 왕실 가문(AI Nahyan)은 UAE 연방 대통령,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직을, 두바이 왕실 가문(AI Maktoum)은 부통령 겸 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직을 각각 세습하고 있음.
 - * UAE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UAE 연방헌법 제54조에 의거 대통령이 총리, 부총리, 장관 임면권을 보유
- 현재 UAE 연방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2004.11월 왕위 계승)은 장기간 투병 중으로 이복동생인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EIU는 군주의 병세 악화로 왕위가 2025년 이전에 Mohammed 왕세제에게로 순탄하게 계승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 후에도 국내외 정책 연속성 및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사회안정

거버넌스 및 정치적 안정성은 우수한 편이나 시민참여 및 언론 자유는 제한적

- 2020년 기준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에 따르면 UAE는 정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 항목은 우수하나, 시민의 정치 및 정책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의 항목은 낮은 수준임.
- 항목별로는 정부 효율성 지표*가 209개국 중 26위로 가장 높았으며,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및 일부 계층의 지배력 행사로부터의 부패 통제도 우수(36위/209개국)하였음.
 - * 공공 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 신뢰성 측정
- 또한, 정치적 불안 및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테러 포함)의 부재 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안정성도 213개국 중 73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민의 정치 참여,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을 측정하는 여론 반영 지표는 208개국 중 174위에 그쳐,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또는 발언권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21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도 UAE는 180개국 중 131위를 차지하며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UAE 정부는 왕족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및 불만 표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중위권(3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1년 5월 보고서에서 UAE에 대한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 (Moderately Negative)으로 부여하였으나 세부 항목별로 등급 편차를 보임. 동사는 ESG 요소가 현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환경: 4등급)** 석유 부문에의 높은 의존도, 수자원 공급을 위한 고에너지 담수화 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성,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환경 리스크 민감도 증가(해수면 1m 상승 시 인구의 10% 위험 노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 2등급)** 노동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한 청년층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은 향후 주요 사회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저실업률 유지를 위한 자국민 고용 촉진정책의 효과성은 이와 관련한 주요 고려 항목으로 작용될 예정임. 다만, 노동시장 및 총인구 대비 낮은 자국민 비율과 비석유 부문으로의 다변화된 경제구조는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지배구조: 1등급)** UAE의 제도 및 거버넌스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비석유 부문으로의 경제 및 정부 수입 다변화 관련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Moody's의 평가대상 국가(총 144개국)의 등급 분포는 1등급 11개국, 2등급 30개국, 3등급 38개국(UAE 포함), 4등급 45개국, 5등급 20개국으로 이루어짐.

국제관계

GCC 회원국 간 협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21년 1월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와 함께 GCC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 수교를 재개하였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 내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여, GCC 회원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간의 협력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UAE는 중동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GCC 내 경제·금융·투자 허브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면서 양국 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중동 지역 사업의 본거지를 두바이에 두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중동 지역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 발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UAE를 견제하며 해외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UAE는 '50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우디의 도전에 대응하여 해외 투자자 유치에서 우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¹¹⁾.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UAE는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 쿼터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사우디 증산 합의안에 반대하여 원유 증산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 이후 2022년 5월부터 UAE의 원유 생산기준을 일 3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의 생산기준도 상향 조정 예정)하면서 원유 증산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산유량 제한에 대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

친미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적대적 갈등 상황 회피를 위해 노력

- UAE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고자 하나 미국의 무조건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자국의 제한적인 군사적 역량을 감안하여 이란과의 적대적 갈등 상황을 피하고자 함*.
* 2019년 7월 이란과의 추가적인 군사 갈등을 피하고 예멘 후티 반군(친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경감 시키고자 예멘 친정부군 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병력 일부를 철수한 바 있음.
- 지정학적 안보 강화에 따른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경제적 차원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다만, 양국 간의 긴장 관계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무슬림형제단, Al-Islah(현지의 이슬람주의 조직)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적대적 경계 태세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을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021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UAE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220.9억 달러(단기 38.1억 달러, 중장기 182.8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0.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주요 ECA들은 UAE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인수 가능

-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UAE의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수 가능함.
- UKEF의 경우 UAE 수출금융 지원대상은 아부다비이며, 두바이는 별도의 수출금융 지원국(단기, 중장기 인수 가능)으로 관리하고 있음.
- HERMES의 경우 UAE 중앙정부 및 토후국별로 총 8개의 수출신용 정책을 관리 중이며, 토후국 중 아즈만을 제외하고는 인수 제한이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1.01)	2등급(2020.01)
Moody's	Aa2 (2021.05)	Aa2 (2020.06)
Fitch	AA- (2021.11)	AA- (2020.11)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3년부터 UAE에 대해 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1년 5월 역내 지정학적 위험 상존과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 높은 1인당 GDP 수준(2019년 63,590달러), 우호적인 국제관계 유지 및 높은 국내 정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2 등급으로 유지하였으며, 2021년 11월 Fitch 또한 등급을 유지(AA-)하였음.

- UAE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약세 및 산유량 감소로 -6.1%의 역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1년에는 두바이 엑스포 개막,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약 2.2% 성장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21년 소비자물가는 2년 간의 디플레이션 후 약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UAE 연방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의 병세 악화로 2025년 이전에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에게 권력이 안정적으로 계승될 것으로 예상됨. 이후에도 아부다비의 여타 토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두바이와의 적절한 권력 배분 하에 정치적 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중동 지역 내 경제적 지배력의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편, 군사·안보·경제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친미 관계를 유지하되 이란과의 노골적인 적대적 갈등 상황은 회피코자 함.